정원이 아름다운 박물관.

봄날 찾기 좋은 박물관

봄바람 살랑, 정원의 꽃잎도 살랑
미술관에서 받은 감동의 여운이 봄 바람타고 솔솔
현지인들도 데이트 장소로 고르는 박물관의 정원들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공원에서의 피크닉도 즐거워
올림픽 박물관 레스토랑에서는 평창 기념 한식 메뉴 선보여

스위스 전역에는 500 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 이들의 참신한 기획력과 전시 관련 디자인물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인정 받고 있는데, 박물관의 전시 뿐만 아니라, 스위스 현지인들이 더 즐겨 찾는 것은 어쩌면 박물관에 딸린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 사는 스위스답게, 박물관 주변의 환경 조성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딸린 정원도 무척 아름답다. 봄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초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박물관 정원을 빼 놓을 수 없다. 현지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잘 고르는 박물관의 정원을 거닐며 고운 빛깔의 봄꽃과 새로 돋아난 초록의 빛깔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을 소개한다. 게다가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루체른(Luzern)의 리하르트 바그너 박물관(Richard Wagner Museum)
루체른(Luzern) 호숫가의 작은 마을 트리브쉔(Tribschen)에서 1866 년부터 1872 년까지 6 년간 지냈던 바그너의 저택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던 다양한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다. 그의 가족이 생활하던 모습도 전시되어 있다. 호숫가 옆에 자리한 이 커다란 저택은 푸르른 공원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바그너는 그의 두번째 아내이자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Cosima)와 아이들에게 둘러 쌓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바그너 박물관답게, 연중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저택의 정원에서는 노천 카페가 운영된다. 커피와 케익, 와인, 맥주를 겸하여 맛깔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즐길 수 있다.

2. 베른(Bern)의 첸트룸 파울 클레(Zentrum Paul Klee)
스위스를 대표하는 20 세기 화가, 스위스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가, 파울 클레는 20 세기 거장 중 한 명으로 스위스의 수도, 베른(Bern) 근교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유럽 지역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파울 클레는 1932 년 나치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후, 고향 베른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 작품의 단순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1940 년 사망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고 한다. 넓은 벌판의 지형에 살포시 기대어 있는 세 개의 물결 형태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은 유명한 이태리 건축가 렌쪼 피아노(Renzo Piano)의 작품인데, 건물 밖으로 이어진 초록 들판 위에서 봄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즐기기 좋다. 공원 옆에는 파울 클레의 묘지도 있다.

3. 취리히(Zuerich)의 디자인 박물관, 리트베르그무제움(Rietbergmuseum)
리트베르그(Rietberg) 박물관은 스위스에서 유일한 비유럽권 예술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전 세계의 예술적인 표현이 놀라울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먼 문화와 종교, 세계의 다른 관점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접할 수 있다. 문화를 발견하는 스릴 넘치는 여정을 기대해도 좋다. 초록의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은 봄날의 산책을 더욱 경쾌하게 만들어 준다.

4. 생갈렌(St. Gallen)의 시립미술관(Natur und Kunstmuseum)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생갈렌의 시립미술관은 매력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전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1877 년에 지어진 건물과 정원이 특히 눈에 띄는데, 네오 클래식 스타일의 건물 안에서 과거와 현대의 거장들의 숨결을 만나볼 수 있다. 동근 형태로 조성된 앞 마당에서는 손을 잡고 거니는 연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여름에는 이 정원에서 각종 문화 행사도 열린다.

5. 바덴(Baden)의 무제움 랑마트(Museum Langmatt)
1900 년에 지어진 빌라 랑마트(Villa Langmatt)는 인상주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르누와르, 세잔느, 모네 등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콜렉션과 희귀한 도자기와 카펫을 풍성하게 소장하고 있다.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도 있는데, 20 세기 전반의 산업주의 시대 가족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이 곳의 정원도 유명한데, 과거 오렌지 나무 온실을 개조해 만든 카페와 역사적인 정원은 현지인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곳이다.

6. 바젤(Basel)의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스위스 바젤(Basel) 근교의 작은 마을, 리헨(Riehen)에 위치한 바이엘러 재단은 미술관이다. 아트 딜러였단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의 50 년에 걸친 개인 컬렉션으로 출발한 바이엘러 재단은, 세잔느를 비롯 고흐, 피카소, 클레, 마티스, 로드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 이곳의 컬렉션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렌쪼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전시 공간 역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약 127m 길이의 전시장 건물을 나오면 만나게 되는 모네의 수련이 가득한 정원이 감탄스럽다. 베로버 공원 레스토랑(Berower Park Restaurant)이 있는 박물관의 공원은 초록이 무성하다. 연인들이 주말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레스토랑이다.

7. 로잔(Lausanne)의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1896 년 최초의 올림픽 게임부터 2018 년 현재, 평창까지 올림픽 스토리로 가득한 올림픽 박물관은 레만호 언덕배기에 위치해 기막힌 풍경이 펼쳐지는 장관을 선사한다. 박물관 전시내용도 좋지만, 올림픽 박물관을 더 유명하게 하는 것은 이 곳의 파노라마 레스토랑, 톰 카페(TOM Café)다. 현지인들도 즐겨 잡는 약속 장소로,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레만호와 알프스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기기 좋다. 현재는 “렛츠 고 투 평창(Let’s Go To PyeongChang)!”이라는 섹션의 한식 메뉴도 즐길 수 있다. 군만두와 불고기, 잡채, 육개장, 닭불고기 등의 메뉴가 등장했다. 박물관과 레스토랑을 들른 후에는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의 조각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꽃 등 볼거리로 가득한 조각 공원에서 즐거운 나들이도 즐길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